



2023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활동 소식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세종도서관

VOL.
08

ISSN 2508-8254

CONTENTS

01 국가정책정보 협의회 운영

04

- 국가정책정보협의회란? | 04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연혁 | 04
- 제5기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위원회 | 05
- 제9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 06
- 정책정보서비스 협력 유공자 포상 | 08
- 포스터세션 | 10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분과위원회 | 12

02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협력사업

14

- 공동전시 | 14
- 협력 교육프로그램 | 20
- 희귀 정책자료 디지털화 | 22
- 디지털컬렉션 | 22

03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23

- 찾아가는 정책아카데미 | 23
- 정책기관 순회대출 서비스 | 23

04 워크숍/세미나

28

- 정책정보서비스 선진사례 해외연수 | 28
- 담당자 워크숍 | 30
- 정책정보 최신동향 워크숍 | 30
- 공동 학술세미나 | 31
- 지역 네트워크 | 31

05 회원기관 활동 소식

32

06 부록

38

- 2023년 분과위원회 연구 결과보고서 | 38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현황 | 50

인사말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수명입니다. 협의회 활동 소식을 통해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협의회가 이룬 성과에 큰 박수를 보내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3년은 국가정책정보협의회가 또 한 번 성장한 한 해였습니다. 소장자료 공동 활용을 위해 단단히 다져진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소규모 그룹인 분과위원회 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매월 분과위원들이 모여 현장에서의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하였으며,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적용하여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정책정보서비스 선진사례 해외연수'를 3년 만에 추진하였습니다. 스무 명의 회원들이 벨기에와 프랑스의 도서관을 둘러보며 새로운 정보를 얻고 교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5기 운영위원회 또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2년간 협의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대 사회는 디지털화, 자동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혁신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영역에서 상용화되기 시작한 인공지능 기술은 도서관과 정책 분야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딥러닝과 자연어처리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참고정보서비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도서 추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장서 점검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AI 알고리즘의 편향성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한 딥러닝 기술은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한 불명확성은 기술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관계를 정립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 결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의 정책 수립을 위해 양질의 정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여정 속에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협의회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4년은 협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현장 중심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정책 지원사업을 제공하며 큰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 덕분입니다. 올해는 지금까지의 성취를 토대로 회원기관 간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협의회만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하면 더 큰 가능성이 열릴 것임을 믿으며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와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수명**

01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

국가정책정보협의회란?

National Association for Policy Information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정부·공공·연구기관에서 생산 또는 소장하고 있는 지식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로 2015년 11월 19일 설립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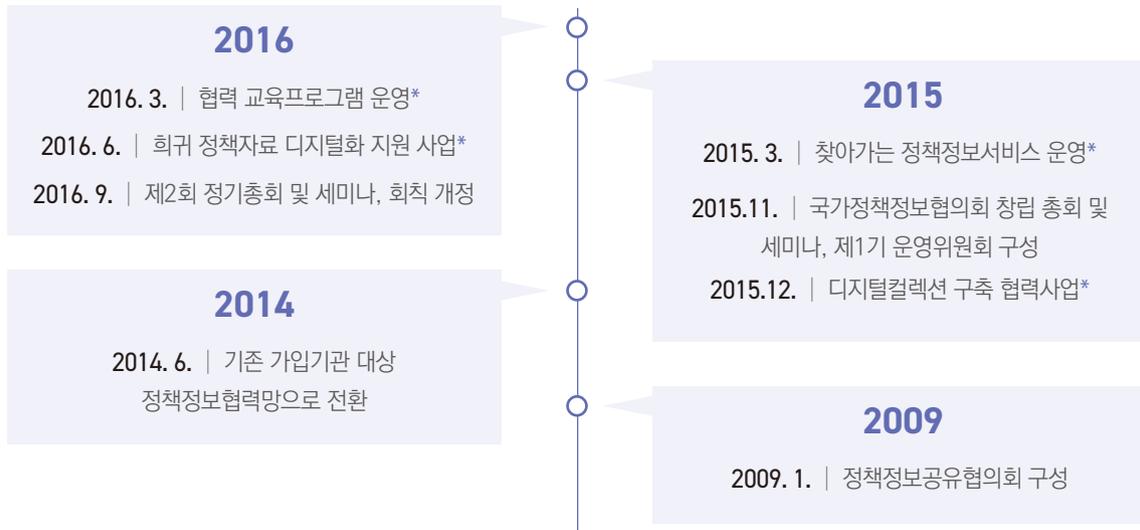
현재 263개 기관(2024. 1.)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수립 담당 공무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소정의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승인을 받은 기관이 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연혁

* 협력사업 시작





제5기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위원회

임기 : 2023년 9월 7일~2025년 9월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제5기 운영위원회가 2023년 9월 7일(목)에 출범하였다. 제4기 운영위원회 회의와 선출직 위원 추천을 통해 제5기 회장단 등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제9회 정기총회 의결을 통해 최종 선출되었다. 임기는 2년으로 2025년 9월까지이며,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과 회원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위원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회칙 4차 개정

도서관법 개정 등에 따라 국가정책정보협의회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회칙 4차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회칙 현행화(제2조), 협의회 임원 선출 방법 변경(회장직을 선출직에서 당연직으로 변경)에 따른 일부 조항 개정(제11조, 제14조, 제15조)이다. 제9회 정기총회 의결을 통해 최종 개정하였다.

제9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국가정책정보협의회(국립세종도서관)는 「제9회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2023년 9월 7일(목)과 8일(금) 양일간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개최하였다. 총회의 주제는 'AI시대, 진화하는 미래 도서관'으로, 챗 GPT 등 AI기술 상용화 시대에 도서관이 직면할 도전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여 미래 도서관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장으로 진행되었다.

회원기관 담당자와 도서관 관계자 9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 사업 성과를 공유하였고, 제5기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칙 개정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였다. 총회에 이어 정책정보자원 공유와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협력 유공자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총 4점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이 수여되었는데, 단체표창으로는 국토연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인표창으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정선영 사서가 수상하였다.



총회 개최(김일환 국립중앙도서관 직무대리)



축사(박승진 한국도서관협회장)



안건 의결(최정순 부회장)



행사 포스터



포스터 세션



특별강연(가천대학교 장대의 교수)



특별강연(인천대학교 김규환 교수)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 AI기술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미래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구하는 강연과 담론이 펼쳐졌다. 주요 강연은 ▲장대의 가천대학교 교수의 “생성 AI의 시대, 도서관의 본질을 다시 묻다”, ▲김규환 인천대학교 교수의 “도서관 관점에서 본 생성형AI 이해와 활용”, ▲이장희 작가의 “스케치 여행을 떠나다”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세미나에서는 ▲이성민 한국연구재단 부연구위원의 “빅데이터와 생성형AI를 활용한 해외 R&D 자원동향 분석 플랫폼 개발”, ▲이혜용 국립중앙도서관 주무관의 “오픈액세스와 기관리포지터리”, ▲송민상 국립중앙도서관 주무관의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 소개”의 주제 및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제9회 정기총회는 AI시대에 도서관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AI의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윤리적 측면 등 다각도에서 담론이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도서관계의 최신정보가 활발히 교류되고, 사서들의 상호 협력과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별강연(이장희 작가)



정기총회 참석자 단체 사진



정책정보서비스 협력 유공자 포상



유공자 포상자 단체사진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회원기관들의 사기진작 및 정책정보서비스 협력기반 강화를 위하여 매년 협력 유공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2023년에는 국토연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단체 3곳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정선영 사서가 수상하였다. 수상자들은 기관 소장자료의 큐레이션을 통한 디지털화 및 대국민서비스, 정책정보종합목록, 찾아가는 정책 아카데미, 정책기관 순회대출 등 정책정보서비스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정책정보 공유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적으로 협력 유공자에 선정되었다.

표창자 수상소감

KRIHS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은 2015년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이 되어 국토발전과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 및 자료 공유 확대를 위해 정책정보서비스 및 다양한 협력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정책정보서비스 및 협력사업은 기관과 도서관에 너무나 좋은 도움이 되었기에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연구원의 주된 연구 성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함께 발전해 온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전시를 국립세종도서관 전시관에서 개최하여 5,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접근성이 훨씬 높은 국립세종도서관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많은 방문객을 확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도로의 발전사를 누구나 알기 쉽게

스토리로 만들어 준 디지털컬렉션 사업도 국토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디지털컬렉션을 통해 서비스되는 ‘고속도로 이야기’도 연구성과 확산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순회대출 책 언제 와요?” 라고 묻는 직원들의 수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특성상 교양 도서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없기에 정책기관 순회대출 서비스를 사서들보다 직원들이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착도서를 기관마다 대출해주는 이 서비스는 더 확장되어 많은 기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국가정책정보협의회에 더 많은 도움을 받았음에도, 2023년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협력 유공기관으로 선정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국립세종도서관과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관계자분들의 도움과 지원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일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기관들과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드리는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은 2023년 정책정보 협력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국립세종도서관과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소규모 전문도서관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지원하여 도서관의 역할 증대와 정책정보서비스 확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고, 더불어 장관 표창까지 받을 수 있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그동안 '희귀정책자료 디지털화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동식물 검역자료의 공유와 보존관리에 도움을 받았고, '찾아가는 정책아카데미'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사

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라는 약점에도 지원사업에 의해 역량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사전연주회(직원 동아리), 저자사인회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석자의 열띤 호응을 받았습니다. 정보교류를 위해 '총회와 세미나 및 소식지'를 통해 검역본부 도서관의 우수사례와 활동 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도서관입비가 있어 '순회대출서비스'를 이용하지는 않지만 전국에 있는 지역본부와 사무소에 순회대출서비스 사례를 활용하여 교양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5년 역사의 동식물 검역 전문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정책정보 공유와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가정책정보협의회와의 발전과 지속적인 정책정보서비스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6년부터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으로 참여하여 정책정보 종합목록, 학술지 목차 메일링서비스,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정책기관 발간물 전시서거, 공동전시, 희귀자료 디지털화 사업, 분과위원회 등 다수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정책정보서비스 홍보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관 도서관의 재정 및 인력만으로 시도하기 어려운 많은 부분

에서 큰 지원을 받았고 그로 인해 기관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인정을 받는 값지고 보람된 한 해였습니다. 협의회와 함께라서 가능한 성장이었기에 2024년에도 저희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공유하고 협력하여 대국민 정책서비스를 위한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서관계의 동반 성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도서관이 우리나라 조세재정 분야 최고의 전문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립세종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회원기관 모든 분들에게도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Korea Electrical Safety Corporation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서로서 2023년 정책정보서비스 협력 유공자로 장관표창을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 직원의 지식역량 강화와 교양지식 함양을 위해 등불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발간자료를 보존·공유하고자 원문DB로 구축하여 사내 전자도서관을 통해 전 직원 대상 원문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정책 정보자원을 활용하여 대국민 대상 전기안전 정보공유를 위해 2018년 국가정책정보협의회에 가입하여 다양한 협력사업에 참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중 디지털컬렉션 구축은 도서관 소장자료 중 공사 특화자료를 디지털 큐레이션하여

대국민서비스하는 사업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업하여 2024년 디지털컬렉션 플랫폼을 통해 전기안전의 필요성과 역사, 전기사고 원인 조사 분석, 연구, 기술개발 등으로 구성된 전기안전 주제 스토리텔링형 컬렉션을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인 정책 아카데미, 순회대출 서비스는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도,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기관에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지 목차 메일링서비스 등의 맞춤형 정보서비스와 정책정보 선진사례 해외연수를 통해 연구지원과 업무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활동내용을 적다 보니 국가정책정보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감사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료보존 및 공유를 위해 협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정책정보협의회 분과위원회

「국가정책정보협의회 분과위원회」는 협의회 회원기관 담당자 간 최신 정책정보 트렌드를 공유하고 공동연구함으로써 정책전문 사서 역량개발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의회 지원 사업이다. 2022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정부, 공공, 국책 연구기관 담당자 각 7인으로 구성된 '정책정보 전문역량 강화분과'가 2개 결정되었다. 활동 범위와 과업은 각 분과 모임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첫 번째 분과는 '라이선스 전자자료 관리역량 강화'를 주제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전문도서관 사서의 전자자료 관리역량과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그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전자자료 구독 계약 업무의 전체 프로세스의 체계적 정리, ▲데이터 기반의 전자자료 구독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 기법, ▲전자자료의 구독과 활용에 관한 저작권 문제와 대응 전략, ▲전자자료 관련 용어집 개발이다.

두 번째 분과는 '디지털 기술 동향 연구'를 주제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자동화하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도서관 업무 프로세스에 RPA를 적용하는 것까지 연구 프로젝트를 확장하였다. RPA 솔루션 중 하나인 MS Power Automate를 활용하여 ▲뉴스레터 발행을 위한 데이터 수집, ▲뉴스레터 발행을 위한 세부 데이터 수집, ▲도서관 교원의 연구업적 데이터 자동 구축, ▲도서관 기관 성과물의 서지사항 및 원문 자동 등록 업무 자동화를 구현하였다.

분과회의는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분과별 7회 진행했으며,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대면모임과 화상회의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모임에는 다과 등의 회의 진행경비를 비롯하여 도서 구입비, 전문가 강의, 체험 학습비 등을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으며 교육시간 인정, 연말 국립중앙도서관장 표창 추천, 협력 유공자 포상 시 가산점 부여 등을 인센티브로 하였다. 또한 '2023년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국가정책정보협의회 공동 학술세미나', '2023년 제60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성과를 발표하여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2023년 성공적으로 운영된 분과위원회를 통한 정책 전문기관 담당자들의 소규모 네트워크 모임이 올해에도 활발히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소소하지만 내실 있는 활동들이 꾸준히 모이고 축적되면 개인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자기계발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전문사서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의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세종도서관과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앞으로도 협의회 회원기관 사서들의 소통과 교류 기회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과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2023년 분과위원회 연구 결과보고서는 부록 참조



분과회의(1분과)



분과회의(2분과)



제60회 전국도서관대회 발표(1분과)



제60회 전국도서관대회 발표(2분과)

활동 소감

1분과



박현모 선임전문원

2023년 2월, 처음 분과위원회 참석 권유를 받았을 때, 실무를 하면서 분과위원회 스터디 모임에 참여한다는 것이 망설여졌었습니다. 업무 과중인 상태에서 연구·조사하는 스터디 모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 7개월간 분과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돌아보니 3가지 정도의 유익한 경험이 있어서 참여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첫째, 업무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분과는 전자자료 라이선스 관리와 관련하여 용어, 저작권, 구독 계약 업무 프로세스 전반, 합리적 구독 의사 결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 기법 등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최근 동향 조사 등을 수행했습니다. 현재 실무와 밀접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실무 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둘째, 유관기관 담당자분들과 네트워킹하며, 시각이 넓어졌습니다.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특정 이슈에 관해 토론하면서 유관기관의 사례를 듣고, 전문가·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이슈를 해결하는 관점이 넓어졌습니다. 셋째, 전문도서관 사서의 전자자료 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국립세종도서관 및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저희 분과 위원장님 및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분과



정태영 선임전문원

2023년은 GPT의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묻는 말에 척척 대답해 주는 GPT를 보면서,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우리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책정보 연구분과' 활동을 통해 하나의 답을 얻었습니다.

다양한 기관의 인맥을 만들어 준 점, 연구 주제나 모임 시간에 자율성이 있다는 점, 각자 현장의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복되는 업무 중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아 활력을 얻은 점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관해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사용할지 몰랐었는데, 분과위 활동을 통해 새로운 자동화 기술을 책뿐만이 아니라 강연, 구현 프로그램 실습으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코딩 기술보다는 훨씬 간단한 조작으로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고, 설계한 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모듈은 신기하고 또 새로웠습니다.

혹시 이바지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업무로 인해 대외활동에 여력이 많이 없다면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새해에도 국가정책정보협의회가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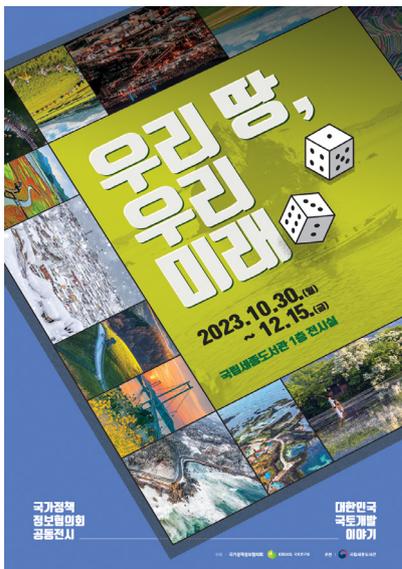
02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협력사업

공동전시

2023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공동전시

우리 땅, 우리 미래

대한민국
국토개발
이야기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국토연구원과의 공동전시 「우리 땅, 우리 미래 - 대한민국 국토개발 이야기」를 2023년 10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국립세종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하였다. 본 전시는 우리나라 국토정책 50여 년 역사를 조망하고, 우리 국토와 사회의 변화상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한 정책 전시로 총 5,277명의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국토종합계획 발전에 따른 우리 사회의 변화상 조망

이번 전시는 1971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토종합계획이 공고된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우리 국토의 변화상을 다채롭게 보여준다. 국토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의 과거와 현재, 도시공원법 제정으로 생긴 광장과 도시공원이 자리 잡은 도시의 모습, 서울과 한강의 어제와 오늘, 인구와 주택 형태 변화 등 국토종합계획이 변화시킨 우리 사회의 모습을 풍부한 시각 자료로 전시하였다.

정책과 삶을 연결하는 전시 구성

본 전시는 세종시를 비롯하여 우리 국토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 국토 어제와 오늘」, 다섯 차례에 걸친 국토종합계획을 연대기별로 제시한 「국토종합계획」, 전문가 50인의 전망과 다양한 국민의 바람을 다룬 「국민이 바라는 국토종합계획」 세션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국토의 주인인 국민과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과 어린이들이 다양한 주제로 공모한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 공모전과 '어린이 미래 국토' 그림 공모전 당선작을 전시하여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다.

우리 국토 체험 프로그램

'내가 도시 계획가라면 이런 도시를 계획하고 싶다' 체험 코너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해 우리 국토의 미래를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며, '내가 만드는 미래도시' 체험 코너에서는 어린이들이 소방차, 아파트 등 원하는 도시를 직접 그리고 스캔하여 대형 스크린에 띄우는 체험활동을 통해 전시를 즐길 수 있게 하였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전시

전시를 직접 관람하지 못한 이용자를 위해 전시장을 그대로 재현한 VR 전시장을 제작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서비스 중이며, 전시 해설과 개막식 현장 및 관람객 인터뷰 등 현장 스케치 영상은 국립중앙도서관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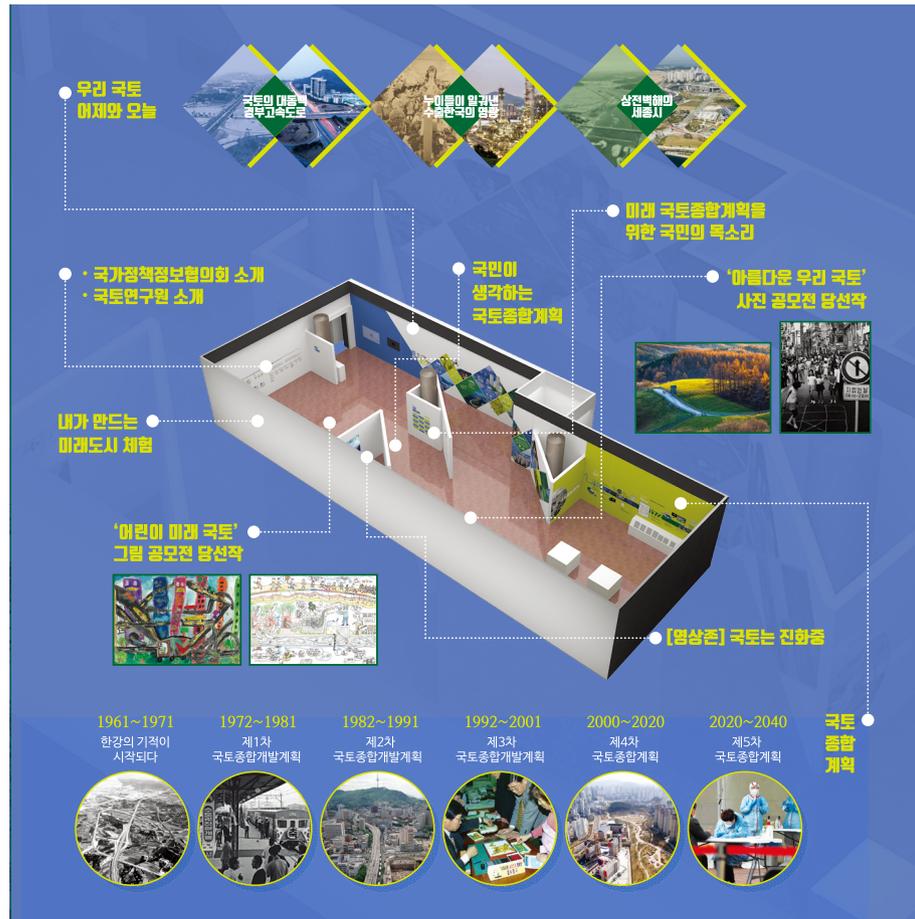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
<https://www.nl.go.kr>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 상세검색

자료검색	디지털컬렉션	신청·참여	도서관 이용	도서관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장자료 디지털과 자료 지식정보 통합검색 Web DB 신착자료 사서추천도서 MZ세대 서가 영상자료 목록 국가자료종합목록 한국고문헌종합목록 국가전자도서관 근대문학종합목록 국가서지 LOD 본문검색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별컬렉션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간보 해외 한국 관련 자료 OAK국기리포지터리 오아시스(OASIS) 책 읽어주는 도서관 전시컬렉션(온라인전시) 세계의 도서관 동아시아 디지털도서관(EDL) 코리아 에모리(시범페이지) NLK La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신청안내 비지팅안내 상호대차 책다모아(기증) 저작권 이용하락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책, 나의 인문기행 연구정보서비스 견학 디지털도서관 예약 사회봉사 교육/문인프로그램 전자우편 구독 연계 AP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에서 이용하는 도서관 도서관 이용안내 이용중 발급안내 자료실 이용안내 도서관 일정 편의시설 자료복사 전시 자주하는 질문 실문조사 오류신고 분실물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중앙도서관 소속도서관 도서관 협력망 도서관소식 발간자료 정보공개 관내사이트 안내

전시 배치도



우리 땅, 우리 미래



전시실 입구



[섹션] 인트로



[섹션] 우리 국토 어제와 오늘



[섹션] 국토종합(개발)계획



[섹션] 국토의 미래



[섹션] 어린이 미래 국토 그림 공모전



[섹션] 국민이 바라는 국토종합계획



[섹션] 영상존



[섹션]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 공모전



[섹션] 내가 만드는 미래 도시 체험

대한민국 국토개발 이야기

개막행사

2023년 10월 30일에 전시 개막행사를 개최하였다. 김일환 국립중앙도서관장 직무대리,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차경례 국립세종도서관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하여 공동전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였다.



[인사 말씀] 김일환 국립중앙도서관장 직무대리



[인사 말씀]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내빈 기념사진



내빈 전시 관람



공동전시 소감



이번 전시는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전시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이었습니다.

단어만 봐도 어려워 보이는 '국토종합계획'을 국민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1970년대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한 사진과 통계, 국토종합계획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영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온 주요 업적을 간단하게 표현한 연표 등으로 누구나 다가가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국토종합계획 공간도 마련하여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아이들이 직접 도시를 꾸며보는 '내가 만드는 도시' 체험존도 마련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전시 기간 동안 5,300여 명의 국민이 방문하여 우리나라 국토의 발전사에 대해 보고, 국토계획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국민들도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전시가 좋았다는 메시지와 몰랐던 국토개발에 대해 알게 되어 기쁘다는 메시지를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전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고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국립세종도서관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 독자적으로 하기 힘든 다양한 사업을 기획해주시고 협력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협력 교육프로그램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정책전문가 강연프로그램인 '2023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협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협력 교육프로그램은 회원기관의 정책전문가가 사회적 관심 분야에 대한 현안과 동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023년에는 국토연구원(11월), 그리고 한국영상자료원(12월)과 함께 진행하였다.

회차	일시	강의주제	강사
1회차	11. 22. 10:14시	행복도, 책임도 가르쳐주는 도시 가르쳐주는 도시	이우진 (국립세종도서관)
2회차	11. 29. 10:14시	빅데이터로 국토 읽기	장요한 (국립세종도서관)
3회차	12. 6. 10:14시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조성 방향	이진희 (국립세종도서관)

〈1차 국토연구원〉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우리 도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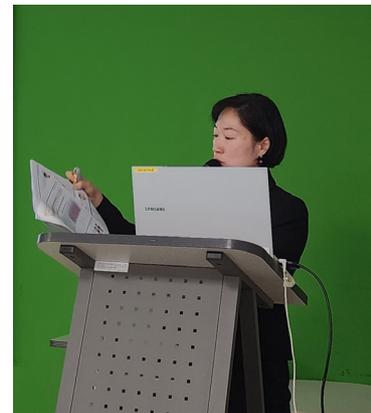
1차 협력 교육프로그램은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우리 도시 이야기'를 주제로 11. 22(수), 11. 29(수), 12. 6(수) 총 3차례에 걸쳐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진행하였다.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사업 관련 도시공간, 공공빅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와 비교를 통한 우리 국토,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도시공간의 발전 방향과 사례에 대해 국토연구원의 국토정책 전문가들이 특별한 강연을 진행하였다.



1회차 | 행복도, 책임도 가르쳐주는 도시
이우진 부연구위원



2회차 | 빅데이터로 국토 읽기
장요한 부연구위원



3회차 | 어린이를 위한 건강 도시 조성 방향
이진희 연구위원



〈2차 한국영상자료원〉 지식정보자원 공유와 확산을 위한 균형 잡기

2차 협력 교육프로그램은 '지식정보자원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균형 잡기'를 주제로 12. 27.(수) 총 2차례 국립세종도서관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였다. 영상도서관의 역사와 현황, 비전, 그리고 마케팅 및 홍보 방향에 대해 영상도서관 운영 담당자가 직접 강연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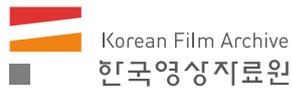


1회차 | 한국영상자료원의 지식정보자원 관리자로서 영상도서관: 과거와 현재
허서연 사서



2회차 | 정보자료의 재화적 스펙트럼에서 영상도서관의 균형 잡기: 현재와 미래
서재은 사서

참여기관 소감



허서연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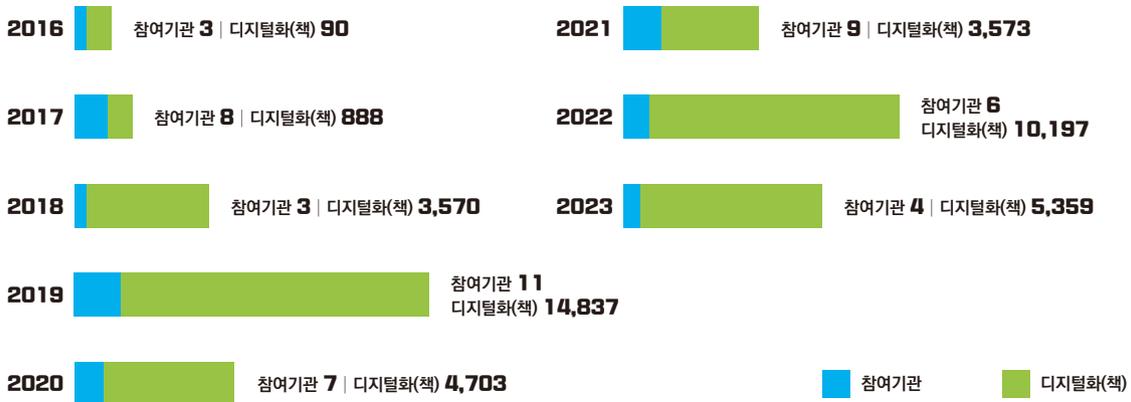
한국영화 및 영상자료를 국가 자원화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영상자료원이 운영하는 저희 영상도서관을 소개하고자 협력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채택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주제는 '지식정보자원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균형잡기'라는 큰 틀 아래 '한국영상자료원의 지식정보자원 관리자로서 영상도서관', '정보자료 재화적 스펙트럼에서 영상도서관의 균형잡기'로 구성하였습니다. 1강 '한국영상자료원의 지식정보자원 관리자로서 영상도서관'에서는 영상도서관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영상도서관 사서의 전통적 역할의 수행이 어떠한 이유로 변화해 가는지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2강 '정보자료 재화적 스펙트럼에서 영상도서관의 균형잡기'를 통해서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던 영상도서관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갔는지 실제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영화자료 전문도서관으로서 영상도서관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영상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이용자가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정보를 생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협력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강의 또한 여러 회원분을 통해 보다 더 값지게 활용되어 뜻깊은 정보로 확대 및 재생산되기를 기대합니다.

희귀 정책자료 디지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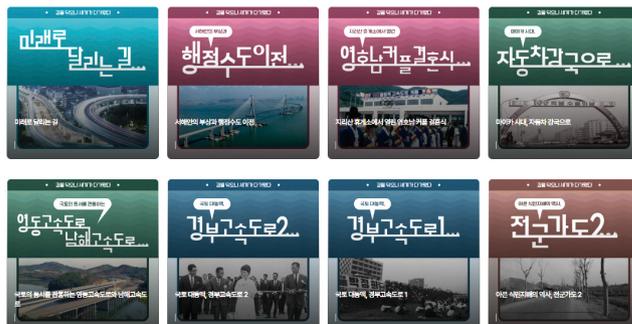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간·소장하고 있는 희귀 정책자료를 발굴하여 디지털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는 국립국악원, 국토연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영화진흥위원회 4개 기관의 5,359책(점)을 디지털화하였다



디지털컬렉션

회원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가치 있고 독창적인 정책 자료를 큐레이션하여 디지털컬렉션으로 구축,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에는 국토연구원의 '길을 닦으니 세계가 다가왔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소중한 전기, 안전하게' 2개 기관의 컬렉션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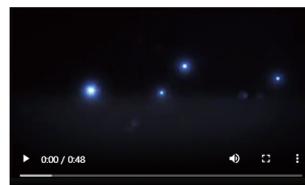
길을 닦으니 세계가 다가왔다



소중한 전기, 안전하게

1887년 광복궁 건청궁, 이땅에 처음으로 전기의 불빛이 밝았다. 전기는 단군 이래 반만년을 지켜오던 호랑님을 대신했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한지 7년 5개월만에 한반도의 밤을 밝힌 것이다.

한국 근대 100년의 상징이자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국민 생활의 등불로 우리와 함께 해온 전기(電氣)



03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찾아가는 정책아카데미

국가정책정보협의체 회원기관 소속직원의 정책역량 함양 및 도서관(자료실)의 역할 강화를 위해 2015년 ‘찾아가는 인문학 강연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정책아카데미」는 정책 및 인문·문화예술 분야의 강의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로 2023년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2개 기관이 운영하였으며, 1,058명이 참석하였다.

연번	기관	날짜	강의주제
1	한국전기안전공사	4. 10.	미래를 결정하는 부의 비밀
2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4. 12.	사물의 뒷모습
3	국립문화재연구원	4. 27.	시와 문화유산 연구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6. 21.	Chat GPT와 미래사회 디지털 리터러시와 업무혁신
5	해양경찰교육원	6. 28.	오늘의 선택이 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
6	국토연구원	7. 4.	철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7	국립생태원	7. 5.	지구, 판구조 그리고 생태
8	농림축산검역본부	7. 6.	100세 시대, 소통으로 더 즐겁게 사는 법
9	한국수자원공사	7. 12.	깊은 공적 인간관계는 가능한가?
10	한국국제협력단	7. 18.	국내 최초 Chat GPT 논문 저자가 직강하는 생성형 AI에 대한 모든 것
11	국민건강보험공단	7. 19.	100세 시대, 평생 행복한 자산관리: 부익부 빈익빈, 부자와 같은 배를 타라
12	한국노동연구원	7. 20.	어른들을 위한 문해력 수업

* 운영 날짜순

정책기관 순회대출 서비스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는 국가정책정보협의체 회원기관 간의 정책정보서비스 운영 활성화와 협력기관 강화를 위해 2015년을 시작으로 「정책기관 순회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책기관 순회대출서비스」는 회원기관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서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로,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기관당 분기별로 200~250책씩 순환 대출해준다. 경남연구원 등 20개관, 5천책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기관당 1년간 총 925책의 신간도서를 이용한 것이다.

연번	기관	연번	기관
1	경남연구원	11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	국립국악원	12	한국교육개발원
3	국립생태원	13	한국국제협력단
4	국립중앙의료원	14	한국노동연구원
5	국토연구원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6	한국소비자원
7	문화재청	17	한국전기안전공사
8	새만금개발청	1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육군기록정보관리단	1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	질병관리청	2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기관명 가나다순

참여기관 소감



심인선 선임연구위원

경남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경상남도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도정 전반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는 다학제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개원한 지 30여 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우리 연구원의 도서관은 말 그대로 무늬만 도서관이어서 자료실 성격이 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1월, 자료실은 전문도서관 경남서관(書館)이 되었고, 전문사서께서 오시면서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공간 배치부터 도서 배열까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경남서관이 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인 순회대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새롭게 배가되는 250여 권의 도서들은 그간 보고서, 데이터 위주의 서적만을 보았던 우리가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대출하여 틈틈이 마음의 양식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책이 들어왔다는 사서님의 공지가 뜨자마자 도서관으로 달려가 책 한 권 한 권을 꼼꼼히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번엔 어떤 책이 들어왔을까? 다음은 어떤 책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 설레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국립세종도서관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 중 이 순회대출 서비스는 정말 꼭 필요하고 앞으로도 지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순회대출 서비스를 통해 대출한 '권력의 심리학(브라이언 클라스)'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얼른 이 책을 읽고 다른 책을 빌려야겠습니다.



이미선 주임

매년 '정책기관 순회대출 서비스' 수요조사 기간에는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할 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도서관 업무량이 많다 보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도서 분실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여러 번 순회대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교양도서 대출은 국립생태원 도서관 보다는 정책기관 순회대출의 이용률이 높고 '세종도서관 도서는 언제 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직원들의 기다림을 생각하면서 2023년에도 정책기관 순회대출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좋은 기회를 주셔서 2023년 '정책기관 순회대출 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1년 동안 분기별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는 이전 순회대출 서비스 때보다 직원들의 호응도 및 만족도가 높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신간 베스트 및 스테디 셀러 등 교양도서를 이용하기 위해 신입 직원들의 도서관 방문이 많았습니다. 또한 순회대출 서비스 운영 기간 중간에 이용자 희망도서 수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지원하여 직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해 주신 국립세종도서관 담당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유지되고 확장되었으면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심유정 주무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은 ‘찾아가는 정책 아카데미’에서 선정되어 2023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이해와 소통을 넓히기 위해 열린 행사로 개최되어 직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방 소도시라는 핸디캡에도 국립세종도서관 지원으로 역량 있는 강연을 접할 수 있어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정책정보 서비스에 대해 소개와 영상을 통해 인지도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검역본부 직원동아리인 도카우하모니가 실내악 사전공연으로 행사를 시작하였고 강연 후에는 참석자와의 단체촬영과 초빙 강사를 모시고 저자 사인회 시간을 가져 열띤 호응이 있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식정보 공유와 확산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카우하모니 실내악 사전공연



단체 사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배효선 선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자료실에서는 2023년 국립세종도서관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임직원에게 양질의 교양 및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정책기관 순회대출 서비스’에 선정되어 2023년 한 해 동안 인문, 사회,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양도서 950권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기관 자료실 특성상 전문분야 도서 구입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 도서는 입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최신 교양 도서를 만날 수 있게 되어 호응이 높았으며, 전체 임직원의 50% 이상이 도서를 대출하고 대출기간 동안 1인당 약 6권의 대출권수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신착도서를 사내게시판에 공지하면 원하는 책을 빠르게 보기 위하여 앞다투어 대출하러 오는 직원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여, 독서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관 내 독서동호회 활동으로 이어져 순회대출 도서를 읽고 토론을 이어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정책 아카데미’ 사업에 선정되어 예술에 관련된 훌륭한 강연을 통해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물의 뒷모습’을 주제로 안규철 작가의 현대 예술과 공예에 대한 깊은 성찰을 만날 수 있는 강연으로 임직원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기영 책임위원

한국수자원공사 문헌정보관은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인 ‘찾아가는 정책아카데미’를 통해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을 통한 업무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연세대 교수이자 상담학자인 권수영님을 모시고 ‘깊은 공적 인간관계는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정상 직접 강연장에 올 수 없는 직원들을 위해 실시간 사내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병행하여 보다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어느 때보다 열띤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관 내 도서관의 역할과 입지가 갈수록 약해질 수 있는 환경에서 국립세종도서관이 지원하는 정책정보서비스를 통해 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이 드높아 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늘 더없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마다 AI 도입과 활용을 부르짖고 있는 이때 ‘찾아가는 정책아카데미’를 통해 사람이 사람을 떠올리게 하고 감동을 울리고 서로 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역할에 큰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최유림 전문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3년 정책기관 순회대출 서비스(이하 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간 925책의 교양도서를 이용했습니다. 전문서적 위주로 수서를 진행하는 본원 장서정책 특성상, 교양도서의 최신성 및 다양성 유지가 어려워 아쉬움이 많았던 터라 직원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고, 사서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본원은 ‘다수의 임직원이 교양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순회대출도서를 접근성이 좋은 서가에 배치하고, 서지정보를 도서관 시스템에 등록해 연구원 장서와 동일하게 예약, 연장, 반납알림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도서 순환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웹포스터를 키오스크에 게시하고, 도서 추가 지원 시 원내 수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실수요를 반영함과 동시에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는 ‘23년 시행한 본원 학술정보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1위(83.34%)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2년 대비 교양도서 대출건수가 56.78% 증가했으며, 대출건수 중 순회대출도서가 차지하는 비율은 과반 이상(52.61%)으로 서비스를 통해 본원 정보서비스 범위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국립세종도서관 담당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원은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협력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순회대출도서 이용안내 포스터



순회대출 도서 서가

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권선희 책임전문원

감사하게도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료실이 '정책기관 순회대출 서비스' 기관으로 선정되어, 원내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순회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원 특성상 기본 과제에 편성된 연구자료 구입비는 과제에 필요한 학술자료 입수가 절대적인지라 의외로, 기본적으로 일반 지역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과 같은 교양도서 신간 입수 및 제공이 어렵습니다. 더불어 현재 본 연구소는 1인 자료실로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다 보니 연구자료 제공 외에 다양한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순회대출서비스는 어느새 확실하게 원내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좋은 책들 앞에서 다들 마음을 열고, 신간을 보며 활짝 웃으며 책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분위기를 환기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스스럼없이 자연스럽게 연출되다 보니, 원내 직원들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받는 게 자료실 운영자로서 매우 보람을 느낍니다.

작년에는 20대~30대 초반의 연구원, 연구조원들이 많이 활용하였다면 2023년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양한 연령층, 직렬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게 이용통계인 듯합니다. 2022년 369권의 자료대출이 발생했다면, 2023년에는 확 늘어나 528권의 자료대출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 순환대출서비스를 마무리하는 지금, 2024년에 이용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정웅 주무관

해양경찰교육원은 2018년에 정책정보서비스를 운영할 기관으로 처음 선정된 후, 2023년까지 <찾아가는 정책아카데미>를 6회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정책아카데미>를 운영할 기회를 주신 국립세종도서관과 국가정책정보협의체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양경찰 양성의 요람인 해양경찰교육원은 전남 여수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과 먼 지리적 특성과, 공공기관의 강사로 지급 기준에 따라 전국에 이름이 알려진 강사를 섭외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명한 강사의 <찾아가는 정책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교직원 및 신임 해양경찰관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강연의 높은 만족도로 인하여 도서관 이미지가 단순히 책만 읽는 공간에서 수준 높은 강연을 들을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에는 오지혜 강사님의 “오늘의 선택이 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라는 주제의 <찾아가는 정책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관심이 많지만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하는 경제 관련 주제여서 그런지 강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직원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기대와 같



이 실제 강연에서 강사님의 유머 있는 매끄러운 말씀과 실생활의 경험을 예로 든 쉬운 설명으로 참여 직원 모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매년 <찾아가는 정책아카데미>를 운영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04 워크숍/세미나

정책정보서비스 선진사례 해외연수

국가정책정보협의회에서는 해외 선진기관의 정책정보서비스 사례 조사를 통한 업무역량 강화 및 정책정보 서비스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하여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6박 8일간 정책정보서비스 선진사례 해외연수를 진행하였다. 총 20명이 참가하였으며 벨기에와 프랑스 2개국 6개 기관을 방문하였다.



벨기에



벨기에왕립도서관

(Bibliothèque Royale de Belgique)

- 1837년에 수집된 고서 및 귀중본, 17~18세기 일본 삼화 수천 점, 9,000개 이상의 고대 및 현대조각판, 20만 개 이상의 주화, 메달 등 오래되고 희귀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 소장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도서관

(European Commission Library)

- 유럽연합(EU) 전체 도서관을 총괄하는 도서관
- 유럽연합에서 출판하는 모든 연구 성과물·출판물, 오픈 데이터 및 그 외 공식 문서 등의 정보 관리



헨드릭 컨시언스 헤리티지 도서관

(Erfgoedbibliotheek Hendrik Conscience)

- 앤트워프 시의 아카이브 전문 시립도서관으로, 플랑드르 작가 Hendrik Conscience의 이름을 따서 명명
- 플랑드르 문화유산을 수집·보존하고, 고전 책과 역사 신문, 최신 간행물까지 150만 개 이상의 항목 소장



루벤대학교 도서관

(KU Leuven Universiteitsbibliotheek en Bibliotheekstoren)

- 세계 1, 2차 대전 당시 폭격으로 다량의 장서와 고전적 자료가 유실되었으나, 재건 이후 10개 캠퍼스에 24개의 도서관과 학습센터 운영
- 400만 권 이상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벨기에 유일 동아시아 주제 컬렉션(한·중·일) 소장



프랑스



마자랭도서관

(Bibliothèque Mazarine)

- 1643년에 설립된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 도서관 중 하나.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희귀 서적과 필사본 컬렉션을 보유
- 현재 약 60만 권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그 중 Mazarin이 직접 모은 모든 주제에 대한 20만 여권의 컬렉션이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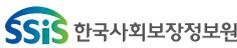


프랑스국립도서관

(Bibliothèque François-Mitterrand)

-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해 지은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으로 마천루 4개의 현대적인 건물로 건축
- 약 1,500만 권의 도서 소장, 전체 소장자료는 3천만 권
- 대한민국 교서인 「직지심체요절」과 「왕오천축국전」 보관 중, 「외규장각 도서(의례 포함)」는 2011년부터 5년제 영구 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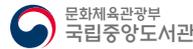
참가자 명단



강선아



구찬미



김경남



김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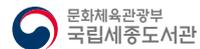
박지은



서인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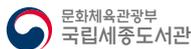
양소현



양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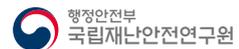
윤의석



이민석



이유경



이종우



이진우



정기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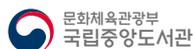
정선영



정은영



조경은



최재은



최정순



홍정림

담당자 워크숍



협의회 참여 기관 확대와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6월 28일(수)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정부 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담당자 44명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 협력사업과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김태원 수석연구원의 “챗GPT 열풍 속,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진행하였다.

정책정보 최신통향 워크숍



2023년 10월 19일(목)에 제60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정책정보 최신통향 워크숍'을 운영하였다.

사서 및 도서관 관계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분과위원회 성과와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가정책정보협의회 분과위원회 성과발표

라이선스 전자자료 관리역량 강화 분과(1분과)
주제 전자자원에서의 저작권 문제와 대응 전략
발표 남은경(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기술원)

디지털 기술 동향 연구 분과(2분과)
주제 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RPA 사례
발표 이서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결과 공유

주제 정책정보포털(POINT)의 지능형 플랫폼 고도화 방안
발표 김병국(랜드소프트 대표)

공동 학술세미나



2023년 6월 22일(목)~23일(금), 금호통영마리나리조트에서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와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SI시대, 전문도서관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강과 사례발표를 진행하였다. 협의회는 '국립중앙도서관 업무처리 자동화 봇(RPA) 구축 및 운영 사례' 및 '전자자료 구독 계약 관련 주요 이슈 정리'를 발표하였다.

지역 네트워크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책 전문도서관 실무자들의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정보 업무와 현안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운영하였다. 서울·경기·강원, 세종·충청, 전라·제주, 경상 4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3월 27일(월) 서울·경기·강원(18명 참석) 권역과 6월 1일(목) 세종·충청(24명) 권역 네트워크를 개최하였다.

네트워크에서는 현안 공유회의 및 오찬 간담회, 기획전시 등을 관람하였다.

* 전라·제주, 경상 2개 권역은 참가자 부족으로 미개최



05 회원기관 활동 소식

생태연구 정보를 쉽고 다양하게 전달하는 '생태교육'과 '생태전시'



생태교육

국립생태원은 국민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생태연구 정보를 쉽고 다양한 생태교육과 생태전시로 풀어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생태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립생태원 생태정보도서관은 생태 콘텐츠를 활용한 타 도서관 대상 생태도서·교육·전시 등의 협업·나눔을 통해 생태가치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더하기'라는 큰 바탕으로 도서관에 생태 분야를 더해 새로운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사업이다.

접근성이 좋은 공공도서관에 국립생태원 출판부에서 만든 도서들을 비치하여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자연을 읽는 생태서가'라는 특화공간을 조성하였고, 국립생태원에서 개발·보급하는 생태교육 서비스를 사업 참여 도서관에서 직접 체험교육을 운영하였다. 또한 기존에 국립생태원에서 생태·환경 주요 이슈 주제로 기획·전시되었던 생태전시를 협업 도서관에 순회·전시하였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논산 남부평생교육원, 서울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도봉도서관·고덕평생학습관, 제주 별이내

리는숲, 용인어린이상상의숲과 협업을 진행하였고, 2023년은 경남대표도서관, 대구 구수산도서관·용학도서관 등 경상지역 중심으로 발굴·확장하였다.

이처럼 '생태가치 더하기'라는 협업·나눔 사업을 통해 타 도서관에 새로운 생태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여 생명사랑, 탄소중립 실천 등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며 앞으로 도서관이 기후변화 및 생태계 파괴 등 생태·환경 주요 이슈 대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생태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도서관의 전문성 & 인문성 영역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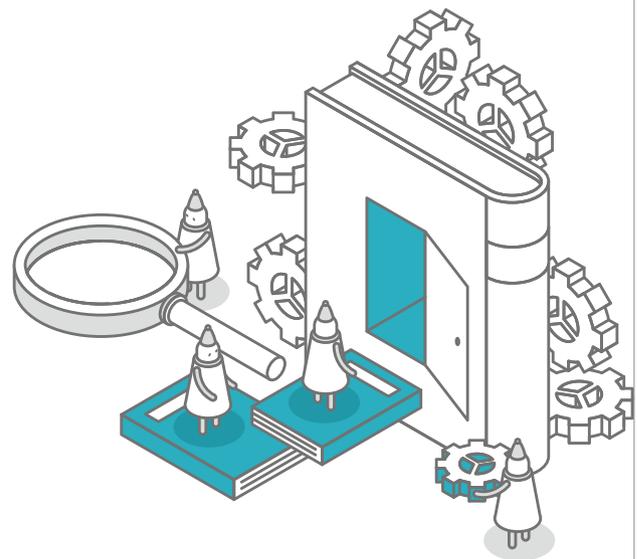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 전문도서관(이하 전문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전문성 영역과 인문성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로 전문성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발간하는 연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임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공단은 다양한 보건·복지 사업을 진행하며 해당 사업이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적절하게 운영이 될지, 예산의 낭비는 없을지' 등 다양한 정책 판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공단의 각 사업부서는 연구 용역의 종료 과정에서 전문도서관을 통해 표절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단에서 발간하는 연구용역 보고서의 무단 표절을 근절하고, 나아가 자료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어서 임직원의 개별적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위 과정을 진행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매 분기 1:1 연구논문 코칭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이 원활하게 학위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지원과 peer review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인문성 영역이다. 전문도서관은 '복합형 직장 전문도서관'이라는 주체적인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직원의 전문성과 더불어 인문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 사회와의 독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여러 사업 중 임직원의 자발적인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독서마라톤 '책린지 레이스'는 임직원이 연간 4,220쪽 가량을 자발적으로 독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후 프로그램 참여자의 전체 독서량(쪽수)을 환산하여 지역 저소득층 아동의 독서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독서하

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사내 어린이집 원아들을 위한 독서 교육 프로그램 '씨앗 책방'을 운영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아동의 성장 단계에 맞춘 도서를 선정하여 동화 구연, 독후 활동 등 아동이 도서에 흥미를 느끼고 부모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다.

공단 전문도서관의 여러 프로그램은 국가정책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여러 협력 기관의 사례를 분석하여 만들어졌다. 앞으로도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협의회와 공유하며 도서관계가 진일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문화유산도서를 직접 보급하는 문화유산도서 무료보급 서비스

Feel the REAL KOREAN HERITAGE

참 만남 참 문화유산

열 개의 길, 일흔다섯 개의 만남



한국문화재단 지능정보화팀은 문화재청과 함께 ‘문화유산도서 무료보급 서비스’를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문화유산도서 무료보급 서비스는 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문화유산도서를 직접 보급하는 사업이다. 한국문화재단 누리집(www.chf.or.kr)에서 관심 있는 도서를 신청하면 원하는 주소로 무료로 배송되며, 실물도서배송 서비스 외에 전자책(PDF 파일)도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우리 문화유산에 더 가까워지고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한국문화재단은 문화유산도서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북 3종과 오디오북 7종을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세계유산과 인류무형유산을 소개한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가이드’, 신화 속 상상의 동물을 통해 옛 선인들의 염원과 생각을 전하는 ‘신화 속 상상동물 열전’, 2023 궁중문화축전과 연계하여 제작한 창경궁 이야기 ‘효와 씬이 깃든 창경궁’ 등 멀티미디어북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의 구술채록을 오디오로 재구성한 오디오북을 한국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즐길 수 있다. 특히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가이드’ 멀티미디어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년

대한민국 전자출판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한국문화재단 지능정보화팀은 앞으로도 문화유산도서뿐 아니라 멀티미디어북의 신규 제작 등을 통해 국민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더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 콘텐츠를 보급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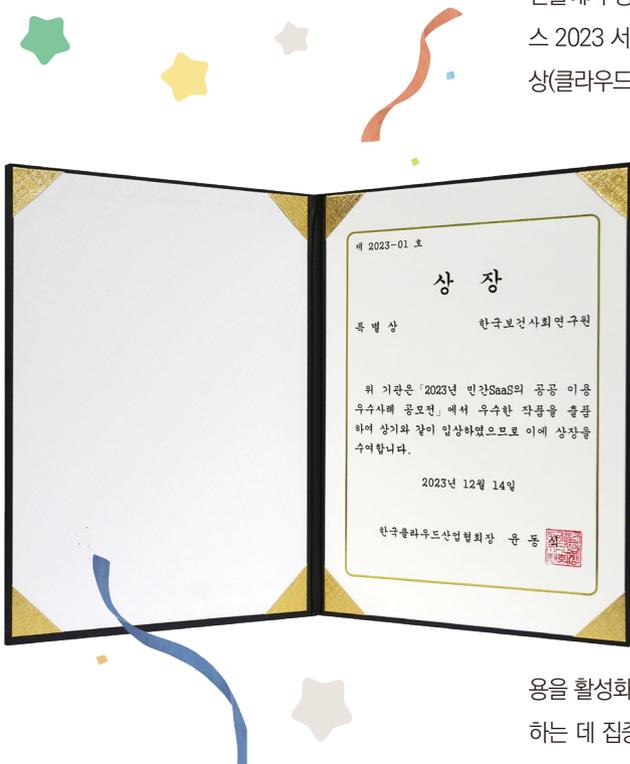
‘2023년 민간 SaaS 공공 이용 우수사례 공모전’ 특별상 수상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023년 12월 14일 SETEC 컨벤션홀에서 공공부문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및 확산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2023 서밋’ 행사에서 ‘2023년 민간 SaaS 공공 이용 우수사례’ 특별상(클라우드산업협회장상)을 수상하였다. 연구원은 2022년 행정안전

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주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통합’ 사업에 참여하여 2023년 1월부터 전자도서관 및 도서관리 시스템을 (주)두드림시스템의 이젠터치로 새롭게 오픈하였다. 연구원은 이젠터치로 전자도서관 및 도서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였고, 신규 서비스인 Discover Online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내외부 연구자와 정책 전문가에게 최신 보건복지 디지털 정책자료를 매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젠터치의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을 활용하여 연구원 내부 사진·영상기록물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 후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하였다. 이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가 행정 및 공공기관의 민간 SaaS 이용을 활성화 하고 클라우드보안인증(CSAP)을 받은 SaaS 이용을 장려하는 데 집중하며, 공공 부문의 업무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자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해양인문학프로그램

‘해양로에서 바다로 - 바다를 꿈꾸다’



프로그램 포스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립해양박물관과 함께 2022년 공동으로 운영한 해양인문학프로그램 <해양로에서 바다로 - 바다를 꿈꾸다>를 책으로 엮은 해양인문학총서7 『바다를 꿈꾸다: 우리가 꿈꾸는 바다』를 출간했다.

해양인문학프로그램 <해양로에서 바다로>는 해양인문학에 대한 지식공유와 확산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국립해양박물관이 함께 운영한 장수 프로그램이다. 이번 총서는 <바다를 꿈꾸다>에서 진행한 바다 신화와 역사, 환경, 해양자원 등 9개의 다양한 바다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바다와 인문학의 만남을 통해 바다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해양인문학총서7
『바다를 꿈꾸다: 우리가 꿈꾸는 바다』

목차

1. 해양실�크로드와 신화적 비단 화소
2. 중화권 해신 마조의 한국 변천사
3. 대양탐사 시대와 연구선단
4. 엉뚱하고 비상한 기후 대응 챔피언, 해조
5. 영양교류와 제주 자다의 신
6. 기후변화와 미래 해양도시
7. 해양생물을 이용한 헬스케어
8. 신화로 만나는 바다
9. 나의 해변일지

총서 표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은 “이번 총서는 인류를 매혹시킨 해양신화를 파헤치고 해상무역로를 탐험하며, 바닷속 신비로운 생명체를 탐구하고, 나아가 맑고 풍성한 바다를 위해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해줄 것이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해양인문학 프로그램과 총서에 대한 많은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환경정보자료실 공간 리모델링 & 무인대출반납 환경 구축



한국환경공단 환경정보자료실은 2010년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기관 통합된 이래로, 오랜 기간 운영되어 온 자료실입니다.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환경 친화적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단의 자료실이지만, 노후화된 공간과 서가배치로 자료실이 아닌 사무공간 이미지가 강하고, 서가와 열람공간이 분리되어있지 않아 자료 열람과 휴게공간이 혼재되어 환경 개선 및 소통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 기존 유휴 공간을 재활용하는 리모델링을 통해 공단 자료실이 열람과 소통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노후화된 자료실 벽, 천정, 바닥을 리모델링하고, 가구를 재배치하였으며, 전등에 on/off 타이머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최소화하여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2023년 7월에는 사서가 상주하고 있지 않는 시간에도 대출반납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무인기반 대출반납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무인기반 대출반납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무인대출반납기와 대출반납프로그램이 연동할 수 있도록 직원용 바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직원용 바코드는 라벨이나 카드형식으로 인쇄하지 않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로그인 시 이미지를 띄우는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용자도 모바일을 이용하여 편리하고, 사서도 바코드 인쇄 시 필요한 신청을 따로 받지 않아 단순 업무발생이 없으며, 인쇄에 필요한 에너지나 자원의 낭비가 없어 탄소 중립 실천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국환경공단 환경정보자료실은 연도별 중장기 계획을 이행하고 공간 리모델링, 무인대출반납 환경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임직원 복지 구현과 공단 자료로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6 부록

[국가정책정보협의회 분과위원회 결과보고서]

제1분과 (라이선스 전자자료 관리역량 강화)

전자자료 전문사서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분과위원회 참여기관 및 위원

강소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위원장
남은경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현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간사
윤혜정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보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수정 |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차지은 | 한국교육개발원

배경

01. 전자자료 구독 업무 프로세스
02. 데이터 기반 구독자료 선정 기법
03. 전자자료의 관리와 서비스에서의
저작권 문제와 대응 전략
04. 전자자료 관련 용어집 개발

배경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전문도서관은 전자자료의 구독과 활용이 매우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자자료를 관리하는 사서의 역량과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전환기에 전자자료를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사서들의 역량 개발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가정책정보협의회 분과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라이선스 전자자료 관리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스터디를 계획하고 진행하게 되었다. 앞으로 전자자료의 관리와 서비스를 전담하는 사서의 전문성이 중요해지는 만큼 그에 맞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참고자료가 매우 필요하고 이를 위한 준비의 첫걸음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주제를 기획하고 논의하고 자료를 작성하게 되었다.

분과위원회 프로그램 개발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첫째, 전자자료 구독 계약 업무의 전체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담당: 이보람, 차지은), 둘째,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구독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용효과 분석, 논문 성과분석, 예산 규모 등 전자자료 선정을 위한 도구로서의 데이터 분석 기법(담당: 윤혜정), 셋째, 전자자료의 구독과 활용에 관한 저작권 문제와 대응 전략(담당: 남은경), 넷째, 전자자료와 관련한 용어집 개발(담당: 이수정, 박현모)이다.

분과위원회의 성과가 아직 부족하고 보완할 점이 많지만 디지털 시대 전자자료 전문 사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첫 단계로서 모두에게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1. 전자자료 구독 업무 프로세스

전자자료 구독 업무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이 크게 구독자료 선정, 계약, 이용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독자료 선정 절차에서는 다양한 정보(이용자 수요조사, 저널/출판사 평판 검토, KESLI 저널 구독 추천 서비스 등)와 통계(DDS 기반 수요통계, COUNTER 5 이용통계 등)를 활용하여 신규 구독 품목, 구독 유지/중단 품목을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품목들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독을 확정하고 기관장의 구독 승인을 득한 후 구독 계약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전자자료 구독 품목을 선정할 시 출판사와의 계약 협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 도서관이 출판사와 구독 금액과 조건을 직접 협상하기도 하고, 구독에 관하여 공동의 목적을 가진 도서관 관련 협의체(KESLI, NST 컨소시엄 등)를 통해 출판사를 대상으로 더욱 유리한 구독 금액과 조건을 얻고자 협상을 추진한다.

구독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계약서를 비롯한 관련 문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계약서 각 조항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계약서에 포함된 항목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단의 내용은 KESLI 컨소시엄 표준계약서를 예시로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서문, 용어정의, 합의사항, 허락된 이용, 불허된 이용, 출판사의 이행의무, 컨소시엄의 이행의무, 쌍방의 이행의무, 계약 기간과 계약 해지, 보증 및 면책, 총칙,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가 이용, Dark Archiving을 위한 원문데이터 제공

자료의 구독 계약이 체결되면 전자도서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구독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이용자의 자료 이용 지원을 위해 구독자료 및 제공범위에 대한 공지와 이용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더욱이 담당 사서는 구독자료의 라이선스 및 저작권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02. 데이터 기반 구독자료 선정 기법

연구중심 전문도서관은 매년 전자저널을 포함한 전자정보 구독에 자료구입 예산의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으며, 빅딜(Big Deal) 패키지 구독이 지속되면서 해외 출판사의 연간 구독료는 자료구입 예산을 앞서가고 있다. 최근 도서관들은 일부 거대출판사와 전자저널에 집중된 예산을 재분배하기 위해 패키지 구독을 새로운 형태의 구독 모델로 전환하고 있다. 타이틀을 선정하여 핵심 저널만 개별구독, 사용량을 제한하는 종량제 모델, 선택 옵션 축소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구독모델을 개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픈 액세스(Open Access) 확산으로 학회 및 출판사의 오픈 액세스 저널 출판이 증가하고, 출판사의 구독 계약은 구독형(Read) 모델에서 오픈 액세스 출판형(Publish) 모델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전자정보 구독이 한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오픈 액세스 패러다임은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구독예산을 재편하고 전자정보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기반 자료가 필요하다.

전문도서관은 기관의 연구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위해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자료 선정의 우선순위는 이용자(연구자) 그룹의 정보요구와 자료구입 예산 규모이다. 그리고, 자료 선정에 있어서 이용 편의성, 적시성, 공간관리 등을 고려하여 전자정보 형태를 우선으로 한다.

1. 출판환경의 변화와 선정 기준

- 1) 인쇄학술지 : 자료선정위원회 등과 같이 이용자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저널을 추천하고, 복사이용 및 목차서비스 건수 등 간접적인 통계를 수집하였다.

- 2) 인쇄+전자학술지 : 이용자 의견수렴 방식을 도입하여 온라인 만족도 조사와 설문 조사 등 형태로 수집하였으나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표성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 3) 전자학술지 : 한정된 이용자 계층의 의견이 아닌 직접적인 이용현황과 학술지에 대한 다양한 지표(등재정보, 영향력지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 4) 오픈 액세스 학술지 : 논문출판량과 논문게재료 등을 기반으로 출판계약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아직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거나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데이터 수집방법

기관 관리자 계정으로 직접 자료를 추출하거나 SUSHI(Standardized Usage Statistics Harvesting Initiative)에서 수집한 통계를 매월 등록된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다. COUNTER(Counting Online Usage of Networked Electronic Resources) 보고서는 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3. 데이터 종류

COUNTER5 보고서는 다양한 형식의 자료추출이 가능하나, 이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료는 이용통계와 거절통계이다.

- 1) 이용통계(Journal Requests, TR_J1) : 저널별 월 단위 원문요청 건수(Open access, Free access 등 무료 이용이 가능한 이용통계는 제외)
- 2) 거절통계(Access Denied, TR_J2) : 저널별 월 단위 접속거절 건수(기관에서 구독하지 않지만, 이용자의 잠재적인 수요로 신규 품목 발굴이 필요한 경우 활용)

4. 데이터 분석

정량적인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석은 이용당 비용(Cost Per Use, CPU)으로 연간 전자정보 구독료를 총 이용횟수로 나눈 값이다. (CPU = 연간 구독료 / 연간 원문이용 건수)

이 외 저널의 메타데이터를 인용 색인 등재정보(SCIE/SSCI, SCOPUS), 영향력지수(JIF), 구독료(패키지, 정가, 옵션 등) 등과 결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출판정보와 인용 정보(참고문헌)는 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 또는 Web of Science, SCOPUS 등을 활용하여 수집할 수 있다.

5. 데이터 분석의 한계 및 고려사항

- 1) 이용통계는 정량적 지표로 중요한 요소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이용자 그룹에 대한 가중치와 연구자의 피드백이 완벽하게 반영되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자료 이용이 단순 다운로드인지 연구 활동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논문출판과 인용 정보(참고문헌) 데이터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독 정보를 선정해야 한다.
- 2) 이용통계에 기반한 자료 선정은 연구 분야별 핵심 저널과 신생 저널이 제외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기관 현황을 반영하여 정성적인 기준을 추가하고, 무엇보다 연구자커뮤니티, 영향력이 있는 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된다.

출판사(정보공급사)에서 제공하는 Counter 보고서 형식은 추출 방식에 따라서 데이터의 누락 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 데이터 분석은 의사결정권자를 설득하기 위한 도구이다. 데이터 분석에 앞서 기관에 적합한 자료유형(전자저널, Web DB, 전자책 등), 논문 이용과 출판 중 비중이 어디에 있는지, 필수 운영 시스템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연구환경과 학술생태계는 연구성과의 개방과 공유에 이어 공정이라는 책무를 요구받고 있다. 오픈 액세스 출판에 있어 도서관과 출판사 양측의 입장은 다르다. 출판사는 여전히 수익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논문게재료와 출판을 확대하려 하고, 도서관은 학술정보의 접근 장벽을 없애고자 한다. 전자정보 구독에 대한 부담은 감소하지만, 논문게재료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해결할 과제로 남아있다. 앞으로 자료구입 예산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구독예산과 논문게재료를 통합 관리하는 역할과 논문출판과 저작권에 대한 업무기능도 필요하다. 오픈 액세스 출판 논문과 데이터를 아카이빙하는 기관저장소(리퍼지토리)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업무영역의 확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내외의 네트워크, 상급기관 또는 전담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가 세미나가 필요하다.

03. 전자자료의 관리와 서비스에서의 저작권 문제와 대응 전략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고, 저작권법 제31조에서는 도서관의 면책 부분에 대해서 주로 명시하고 있다.

전문도서관의 경우 전자자원으로 상당한 대체가 이루어졌고 낮은 감은 있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전자자원을 저작권법 측면에서 어떠한 부분이 허락되고 있는지 검토를 수행하였다. 검토 대상은 전문도서관 분야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학술자원, 웹 자원, 연구성과물로 한정하였다.

저작권법 제31조에서는 도서관은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 조항으로 이용자에게 디지털 복제는 불가하고, 디지털 형태로 열람하는 도서들도 그 도서가 디지털 형태로 판매가 되는 경우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가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서관에서 IP 기반으로 보는 전자저널, ID 기반으로 운영되는 학술 DB 등을 기관 내 이용자에게 디지털 형태로 서비스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가능한 것일까? 전자저널의 경우 그것이 홀딩의 형태이든 액세스의 형태이든 저작권법에서는 보관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저작권법 범위 내에서 인쇄 형태의 복제는 가능하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는 직원과 외부 이용자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이루어지는 디지털 형태의 서비스는 저작권법에서는 불가한 상태이다. 플래시 서비스도 예외는 아니다. ID 기반으로 운영되는 학술 DB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동시 접속 아이디 개수에 따라 요금을 달리 책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일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에서 허락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공급사와 이루어지는 라이선스 계약에 모든 서비스 내용을 포함해서 계약해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에서 허락하는 내용을 라이선스 계약에서 불허하고 있다면 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사서나 직원들이 구입하는 전자자료도 이용 범위를 확인 후 전자도서관 시스템 등록 유무를 결정해야 하고 서비스해야 한다.

웹 자원을 수집하고 DB화하는 경우는 단순 링크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링크를 클릭할 경우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 자신의 홈페이지나 게시물에서 바로 보이도록 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 영상을 다운로드, 업로드 하는 방식이 아니기에 복제나 전송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저작물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동일성 유지권(저작권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타 사이트의 파일을 내려받아 업로드하는 경우는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나 CC 라이선스나 공공누리를 통하여 허락된 경우 웹 자원의 수집이나 DB화는 가능하다.

많은 도서관에서 연구보고서를 관리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기관 내에서 작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이나 협약에 의해서 외부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작성 기관이 외부인 경우는 계약서나 협약서에 명시된 저작권 양도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저작권법 제45조에서는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을 때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념해야 한다.

04. 전자자료 관련 용어집 개발

최근 도서관에서 전자자료를 수서, 관리, 제공하는 업무가 증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자자료 생산에 따라 전자자료 수서 형태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전자자료 구축 업무를 수행하는 사서가 알아야 할 지식 및 용어가 계약, 저작권, 세무 등 방대하여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이용자, 동료 사서 및 공급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사용되는 용어를 용어집으로 정리하여 공통된 의미로 해석하고, 유관 기관 담당자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번 분과 활동에서는 용어를 수집하고, 일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는 단계까지 작업을 진행하였고, 용어집의 구성, 수록 방식 및 추후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용어집 내 용어 취합 시 활용한 흐름도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다.



먼저, 용어집 내 용어 범위는 전자자료 선정, 협상, 계약, 관리, 서비스, 홍보 등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수집하였다. 용어집의 내용으로는 각 용어의 뜻, 유의어 등을 수록할 필요가 있다. 수록 방식은 업무 프로세스별로 분류하되, 가나다/알파벳 순 정리, 외래어의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로 원어를 표기할 계획이다. 향후 용어집 개발 추진 시 용어 정의는 기존에 개발된 한국도서관협회 문헌정보학 용어 웹 버전 사전(https://www.kla.kr/kla/bbs/board.php?bo_table=reference07)에서 정의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참고하고, 네이버 국어

사전, 위키피디아, 문헌정보학 개론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용어를 확대 수집 시에는 국가도서관,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전자자료 관련 용어를 포함하여 수집할 계획이다. 또한, 타 분과 스터디 활동 중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추가로 포함하여 정리할 예정이다.

개발이 완성된 용어집은 전자자료 활용 도서관 소속 사서들과 공유한다면 전자자료 수서/계약/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웹 버전으로도 구현하고, 용어집 웹사이트에 검색 기능을 탑재한다면 이용 효용성이나 업데이트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다.

[국가정책정보협의회 분과위원회 연구 결과보고서]

- 제2분과 (디지털 기술 동향 연구 분과)

지능형 자동화를 통한 도서관 업무의 방향성 모색과 고찰

- RPA 이해와 구축 사례 연구를 통해 -

분과위원회 참여기관 및 위원

- 강선아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권은경 | 육군기록정보관리단
- 신윤정 | KDI 국제정책대학원 | 위원장
- 심수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윤소영 | 기획재정부
- 이서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태영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간사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론
3. RPA의 이해
 - 1) RPA 개념정의
 - 2) RPA 기대효과
 - 3) RPA 적용 가능 업무
4. RPA의 도입과 활용
 - 1) RPA 솔루션
 - 2) MS Power Automate
 - 3) MS PAD를 활용한 도서관 업무 자동화 구현
 - 4) 연구의 단점 및 한계
5.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배경 및 목적

물리적인 공간과 장서에 대한 이용효율성이 저하되고, 단순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은 최근 도서관에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이슈이다. 다양한 데이터와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으로 도서관과 사서의 기대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RPA는 이 디지털 대전환시기에 부족한 인력과 시간, 기술에 대한 보조적 활용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제2분과위원회의 연구과제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론

분과위원 모두 RPA라고 하는 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전무하였기에 일단 일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전문가 강의를 2~3회 듣고, 심도 깊은 이해와 발전을 위해 관련 분야 도서를 선정하여 독서 후 시사점을 토론하기로 하였다. 책은 김인수 저자의 「RPA 레볼루션」과 김성준 저자의 「Microsoft RPA 파워오토메이트」 2권을 보면서 기초와 기술에 대한 이해에 집중하였다. 또한 최신 디지털 기술동향 파악 및 트렌드 분석을 위해 IT 보고서를 추가적으로 찾아보고 분석하였다.

처음에는 간단히 기술동향과 트렌드 파악에 의의를 두었지만, 분과 모임을 지속하면서 조금씩 생긴 자신감으로 RPA 기술을 활용하여 간단하게라도 도서관의 실제 업무에 접목해 보는 것까지 연구 프로젝트를 확장하게 되었다.

3. RPA의 이해

1) RPA 개념정의

국립국어원(2022년)에 따르면 RPA는 인간을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알고리즘화하고 소프트웨어로 자동화하는 기술이라고 한다. RPA는 Robotic Process Automation의 약자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라고 한다. 비즈니스 과정 중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자동화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로봇은 제조 공장의 기계 로봇이 아닌 사람이 컴퓨터를 이용해 처리하는 모든 행위를 그대로 흉내내는 소프트웨어 로봇이다.¹

2) RPA 기대효과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로봇이 대신하고 사람은 정책 개발, 서비스 개선 등 좀 더 창의적이고 고부가가치적인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근무 만족도와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업무상 오류를 방지하고 업무 처리시간은 단축시킴으로써 업무의 경쟁력 또한 높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점차 RPA에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연어처리, 광학문자 인식 등 AI 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복잡한 예측 분석을 활용한 의사결정 자동화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김인수, 「RPA 레볼루션」, 2022

3) RPA 적용 가능 업무

임직원 4대보험 계산 및 취득 상실 신고, 온라인 교육 수료 현황 관리, 법정 교육 외부 수강 데이터 EIP 등록,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인사 노무 분야부터, 법인카드 전표처리, 각종 지출 전표 처리, 출장비 정산 등의 재무 회계 분야, 경영기획, IT 업계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영역에 RPA 기술이 활용되어 자동화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최근 도서관계도 2022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RPA 구축 및 운영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미납본 자료조사, 메타데이터 변환, 서비스 점검 등에 RPA를 활용하였다.

4. RPA의 도입과 활용

1) RPA 솔루션

국내외 많은 업체에서 경쟁적으로 제품을 선보이고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대표적인 외국제품으로 UiPath, Automation Anywhere, MS Power Automate 등이 있고, 국내제품으로 AutomateOne, CheckMATE, 삼성SDS Birty RPA 등이 있다.

Figure 1: Magic Quadrant for Robotic Process Automation



Source: Gartner (August 2023)

[그림1] RPA 솔루션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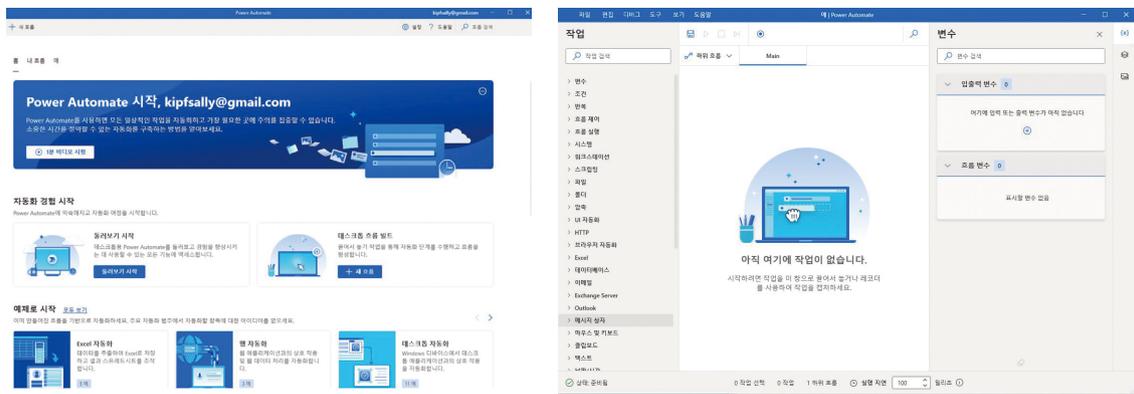
RPA 솔루션 기본 구성은 대체로 개발도구(시나리오 프로세스 구성), 관리도구(스케줄링, 모니터링, 통제), 수행도구(자동화 프로세스 실행)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구성별 로봇 유형에 따라 서버 기반 무인 봇, PC기반의 유인봇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가 조직 전반의 업무처리 자동화에 이용된다면 후자는 1인 1봇 체제의 RPA에 적용되어 비교적 소규모 단위의 업무처리 자동화에 활용될 수 있다.

2) MS Power Automate

김성준 저자에 따르면, RPA는 시민 개발자가 지향하는 가장 이상적인 개발 도구의 하나이고, PAD(Power Automate Desktop)는 일반 사용자가 소스 코드 한 줄 없이 업무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소스 코드를 기술할 필요가 없는 PAD는 노 코드(No Code)에 가깝다. 마치 레고 블록을 이용해서 집을 짓고, 자동차를 조립하듯이 PAD의 모듈(작업)을 서로 연결해서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만들도록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다.²

그래서 우리 분과위원들은 MS PAD(Power Automate Desktop)를 이용하여 실제 도서관 업무를 자동화해보기로 하였다. Windows 11 사용자는 사전에 설치된 Power Automate 앱을 실행하거나 Microsoft Store에서 Power Automate를 다운로드하면 된다. 아래 그림은 Power Automate를 시작하면 나오는 메인홈과 개발도구인 흐름디자인이다.



[그림2] Power Automate의 메인홈과 흐름디자인

3) MS PAD를 활용한 도서관 업무 자동화 구현

이번에 분과위원회에서 PAD를 활용하여 구현한 사례는 총 4개로 주요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고, 구현한 사례영상은 2023년 전국도서관대회,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세션에서 발표하였다.

번호	업무명	내용	주기	흐름 구성
1	뉴스레터 발행을 위한 데이터 수집	매주 뉴스레터 발행을 위해 국내 여러 연구기관 사이트를 접속하여 발간물 데이터를 확인 후 연구분야와 관련된 데이터를 선별하는 작업	주1회	웹브라우저 열기 - 사이트 이동 - 엑셀에 데이터 목록 내려받기 - 사이트 이동하며 반복 수집
2	뉴스레터 발행을 위한 세부 데이터 수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데이터를 엑셀에 내려 받는 작업으로 각 자료를 클릭하여 나오는 상세화면 정보까지 수집	주1회	웹브라우저 열기 - 사이트 이동 - 각 데이터 목록 및 상세화면의 요약 정보 자동 수집

2 김성준, Microsoft RPA 파워오토메이트, 2023

번호	업무명	내용	주기	흐름 구성
3	연구자의 연구업적 데이터 구축	매월 서지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기관 소속 연구자의 학술 논문을 검색한 후 학내 연구업적관리시스템에 반입하고, 신규로 등록된 논문을 연구자명과 매칭하는 작업 수행	월1회	웹 브라우저 열기 - 사이트 이동 - 검색 조건 선택
4	기관 성과물 구축	비정기로 출판되는 교원 연구성과물인 Working Paper가 등록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규 등록 자료가 있을 경우 목록에 필요한 서지 사항 및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신규로 등록	수시	웹 브라우저 열기 - 사이트 이동 - 상세화면 이동 후 웹데이터 추출 - 원문데이터 다운로드

4) 연구의 단점 및 한계

아무리 노(No)코드라고 해도 코딩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는 이해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MS Power Automate를 활용한 1인 1봇 업무 적용 시 RPA 수행 시에는 다른 업무 특히 인터넷 브라우저를 활용한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서 PC나 노트북 등 RPA 수행을 위한 별도의 작업 기반이 필요했다.

5. 결론 및 시사점

앞으로 RPA는 기술의 진화로 머신러닝, AI, OCR, 광학문자인식, 자연어처리기술 등의 융합을 통해 초자동화(Hyperautomation)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또한 시민개발자가 대세가 되어 1인 1로봇 자동화 시대가 올 수 있다. 쓰기 쉬운 RPA 솔루션을 도입하고 맞춤형 기술교육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 동향과 정보 습득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국가정책정보협의회에 감사를 드린다. 인적 네트워크 확장과 교류에 도움이 되었음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훌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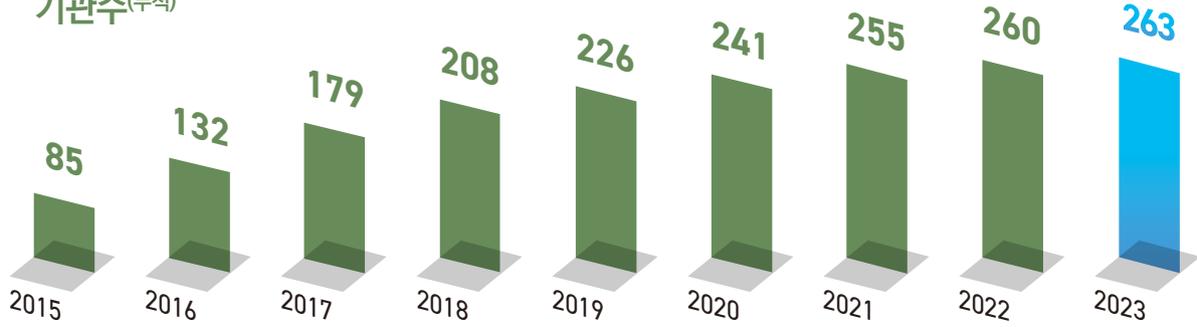
앞으로 AI를 접목시킨 기술 발전이 가속화됨에 발맞추어 도서관계에서도 AI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RPA를 적용 가능할만한 업무와 프로세스 탐색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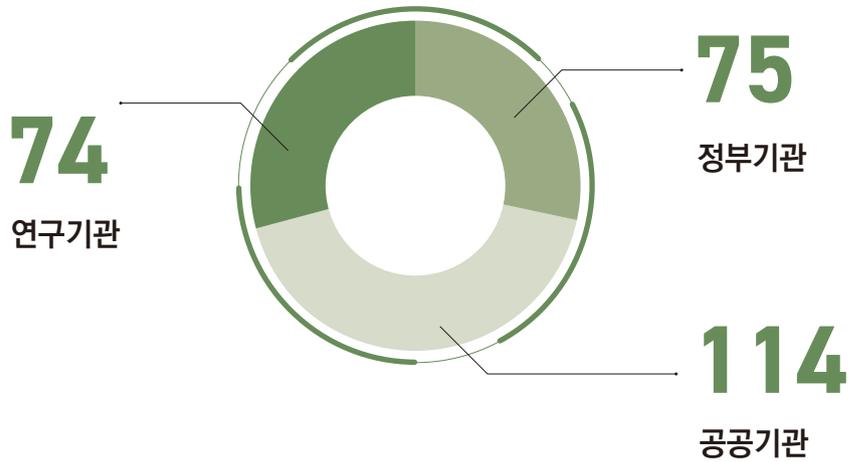
- 김인수, 2022, RPA 레볼루션
- 엄선태, 2022, 디지털 전환을 위한 RPA의 이해와 구축 방안, 문화정보 이슈리포트 제40호
- 정혜림, 2023, 국립중앙도서관 RPA 구축 및 운영 사례, 2023년도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국가정책정보협의회 공동 학술세미나 자료집
- 김성준, 2023, Microsoft RPA 파워 오토메이트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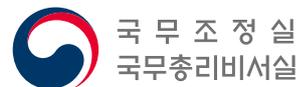
가입연도별
기관수(누적)



관종별



2023년 신규 가입기관 (5개관)



지역별

서울 71개 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경인지방동계청(나라샘)
- 경찰청
- 국립국악원
- 국립국어원
-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산림과학원
- 국립외교원
- 국립재활원
- 국립정신건강센터
- 국립중앙극장
-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중앙의료원
- 국립한글박물관
- 국립항공박물관 항공도서관
- 국방부
- 국악방송
-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 근로복지공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대한민국예술원
- 대한민국학술원
- 대한체육회
- 동북아역사재단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서울연구원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세종학당재단
- 식품안전정보원
- 예교보협공사
- 외교부
- 유해발굴감식단
- 육아정책연구소
- 전쟁기념사협회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지방공기업평가원
- 통일부
- 통일연구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한국고전번역원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국방연구원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한국문화정보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문화재단
- 한국문화정보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스마트정책과학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영상자료원
- 한국은행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저작권보호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한국특허정보원
- 한국행정연구원
- 해양환경공단

경기도 24개 기관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IOM 이민정책연구원
- 경기연구원
- 국립생물자원관
- 국립수목원
- 국립암센터
-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환경경인재개발원
- 국민건강보험일상생활원
- 국사편찬위원회
- 극지연구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법무부
-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인천연구원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디자인진흥원
- 한국석유관리원
- 한국약품안전관리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한국화중양연구원
- 한국환경공단

강원도 8개 기관

- 강원연구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도로교통공단
- 한국관광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종 36개 기관

- 건축공간연구원
- 경제·인문사회연구원
- 공정거래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교육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국가보훈부
- 국무조정실
- 국세청
- 국토연구원
-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 산업연구원
- 산업통상자원부
- 소방청
- 인사혁신처
- 중장노동위원회
- 축산물품질평가원
-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교통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한국환경연구원
- 해양수산부
- 해양문화홍보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환경부

충청도 54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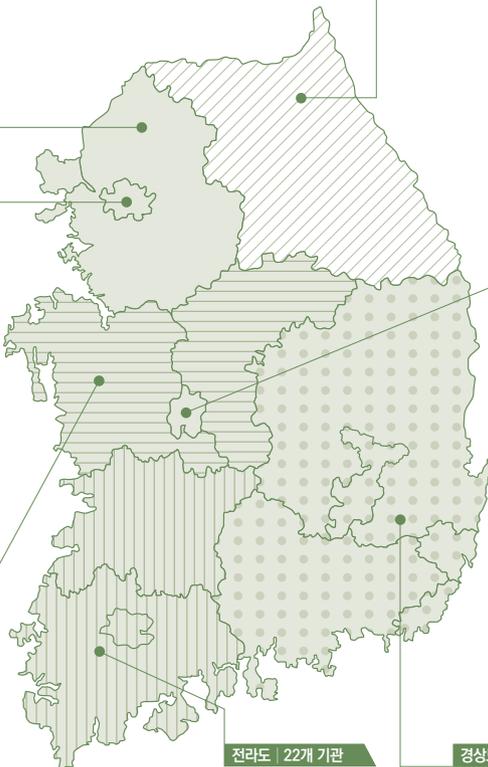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국가기술표준원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국가철도공단
- 국립문화재연구원
- 국립부여박물관
- 국립생태원
- 국립특수교육원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국방과학연구소
- 기초과학연구원
- 대전고등검찰청
- 대전교육과학연구원
- 대전세종연구원
- 문화재청
- 산림청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육군기동정보관리단
- 육군본부 법무실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질병관리청
- 충남연구원
- 충북연구원
- 통계교육원
- 통계청
- 특허청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국소비자원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연구재단
-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전라도 22개 기관

- 광주과학기술원
- 광주연구원
- 국립광주과학관
- 국립광주박물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국립전주박물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국민연금공단
- 농촌진흥청
- 새안금개발청
- 전남여성가족재단
- 전남연구원
- 전북연구원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태권도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전력거래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 해양경찰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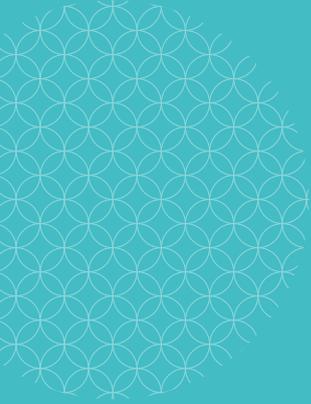
경상도 42개 기관

- 게임물관리위원회
- 경남연구원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국립경주박물관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국립수산과학원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국립해양박물관
- 국방기술품질원
- 국토안전관리원
- 농림축산검역본부
- 동남권원자력학원
- 부산산업과학혁신원
- 부산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 영상물등급위원회
- 영화진흥위원회
- 울산연구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앙교육연수원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뇌연구원
- 한국도로공사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세라믹기술원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자선관리공사
- 한국직업재단
- 한국지역권위원회
- 한국전기연구원
- 한국주박물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한복진흥원
- 한국한의학연구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주도 6개 기관

- (재)국제평화재단
- 공무원연금공단
- 국립제주박물관
- 재외동포청
- 제주연구원
- 한국국제교류재단



발행일 2024년 3월 29일

기획 및 편집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

발행처 국립세종도서관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사무국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48

 (044)900-9062

 napi@korea.kr

 누리집 <http://napi.nl.go.kr>